



2021 국제 컨퍼런스 <코로나19와 돌봄경제> 리뷰를 마치며

“우리는 시민사회, 정부, 기업의 돌봄 파트너... 신개념 연구기관의 활약 기대해달라”

은기수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장 인터뷰

2021년 6월 주최한 2021 국제 컨퍼런스 <코로나19와 돌봄경제>는 한국 사회에서 돌봄 이슈를 학문적, 정책적, 실천적으로 심도 깊게 다룬 첫 시도였습니다. 국내외 학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관과 저명 인사가 한 자리에 모인 뜻 깊은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 행사가 어떤 취지에서 기획됐고, 어떤 함의와 도전 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는지에 대해 본 컨퍼런스를 진두지휘한 은기수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국내에서 돌봄경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대규모 학술 행사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그간 돌봄을 중심에 놓고 진행된 연구나 학술 행사는 많았다. 하지만 돌봄을 돌봄경제 시각에서 다룬 대규모 학술 행사는 없었다. 정부가 돌봄 관련 여러 정책들을 펼치지만, 복지 및 아동 교육 차원이다. 즉, 돌봄을 좁은 의미로, 지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이하 CTMS)가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돌봄을 비용이 아닌 투자,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인식하고 돌봄경제에 대해 심도 깊게 접근했다는 데서 의의가 크다.”

CTMS는 2019년 출범한 신생 연구소다. 돌봄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연구소를 설립한 배경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한국의 급속한 인구구조 변동은 우리 연구팀의 오랜 관심사였다. 그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던 중, 2015년 국제시간학회에서 미(美) 아메리칸대 돌봄노동과 경제(CWE-GAM) 프로젝트 연구자들을 만났다.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마리아 플로로 아메리칸대 경제학과 교수가 2016년 국제시간학회 기조연설을 맡아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급속한 인구구조 변동과 돌봄 현실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체계적 연구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휴렛재단(Hewlett Foundation)의 지원으로 국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오픈소시아터티파운데이션(이하 OSF)의 지원을 받아 CTMS를 설립하게 됐다.”

1 오픈소시아터티재단(OSF)은 ‘투자의 대가’ 조지 소로스가 사재 20조 원을 털어 세운 기관으로, 빌&멜린다게이츠재단에 이어 미국에서 두번째로 큰 민간자선단체다. 1980년대부터 동유럽 국가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기 시작해 현재 남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아메리카 등 120여 개국에서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 확산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해외 연구자들이 한국의 돌봄 현실에 관심 갖는 이유가 뭔가.

“휴렛재단은 아프리카에 관심 갖고 지원하는 재단이다. 아프리카에서도 여성들이 주로 돌봄을 담당한다. 휴렛재단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능력 있는 아프리카 여성들이 가정에 얽매는 현실에서 벗어나 사회 및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 아프리카 사회가 개발, 발전돼 궁극적으로 성평등 실현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변화에 나서려면 돌봄경제가 아프리카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증거와 모델이 필요하다. 이에 휴렛재단의 지원을 받는 CWE-GAM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위한 돌봄경제 정책을 만들고자 했다. 과학적 자료 및 연구 결과에 기반한 거시경제학적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에선 아직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구축돼 있지 않았다. 연구자도 부족했다.

한편 인구구조 변동이 매우 급속한 한국은 돌봄 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질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및 여러 분야의 관련 데이터가 굉장히 잘 구비돼 있다. 학문적 능력이 출중한 학자도 충분하다. 따라서 우선 한국에서 돌봄경제에 관한 거시경제학적 모델을 정립하기로 했다. 여성이 돌봄 때문에 유급노동을 얼마나 포기하고 있는지, 여성이 돌봄을 얼마나 담당하는지, 시대/친정 중 어느 쪽의 도움을 받는지,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등에 대해 양적 및 질적 조사로 새로운 데이터를 구축하고, 통계청의 고용 및 생활시간 데이터 등을 활용해 연구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를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최했다.

“우리 센터와 CWE-GAM가 3년 기간의 ‘돌봄노동과 경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1차년에 독일 베를린, 2차년에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연례 학술대회를 열었고, 마지막 3차년인 2020년 서울에서 이 프로젝트를 종합 결산하는 학술대회를 열기로 했다. 단순히 학술연구에 그치지 않고, 한국 정부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서울 개최에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일정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1년이 지나도록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결국 해외 참석자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방식으로 2021년 6월에 돌봄경제 국제학술대회를 열게 됐다.”

노벨경제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석좌교수, 돌봄경제 연구의 권위자 낸시 폴브레 미 매사추세츠대 명예교수,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국내외 저명 인사들을 기조발제자 등으로 모셨다. 대단한 ‘섭외력’을 보여준 비결은.

“우리 센터는 설립한 지 2년 밖에 안된 신생 연구기관이다. 하지만 센터 설립 이전부터 우리 연구팀은 국내외 돌봄경제의 주요 연구자 및 재단과 밀접하게 교류하며 신뢰 관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국제적 인사들을 모실 수 있었던 것은 파트너 기관들의 전폭적 지지 덕분이다. 그간 현장 활동가를 주로 지원해온 OSF는 학술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를 연결하고 중개하며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우리 센터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새로운 시도’ 라며 이번 컨퍼런스 준비를 받

벗고 도와줬다. 마리아 플로로 교수와 CWE-GAM 프로젝트를 함께 이끌고 있는 엘리자베스 킹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우리 센터와 우리 센터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적극 알리며 저명 인사들을 모실 수 있게 힘써줬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기업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다. 제가 한국인구학회장도 맡고 있는데, 인구학회와 포스코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이번 컨퍼런스 취지에도 공감하고 흔쾌히 동참해 주셨다.”

한국 인구구조 변동 고려할 때 돌봄경제 육성 시급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많은 이들이 ‘돌봄경제’라는 새로운 용어를 배우게 됐다.

“한국 사회에서 돌봄경제(Care Economy)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다. 그간 돌봄은 정부의 복지 정책의 한 분야로, 정부의 예산 지출 대상으로 여겨졌다. 돌봄을 경제와 연결하는 ‘돌봄노동과 경제’ 프로젝트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고민할 때 플로로 교수가 이 같이 설명했다.

‘현재 돌봄노동은 주로 여성이 무급으로 수행한다. 때문에 능력 있는 여성들이 결혼-출산-양육으로 일을 그만 둔다. 하지만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계속 활동한다면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고, 지출을 늘려 내수시장이 활성화된다. 높아진 소득은 내수 시장에서 소비로 이어진다. 이로써 GDP가 향상된

다. 여성이 계속 유급 노동시장에 참여하면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중국엔 국가경제가 성장하는 바람직한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다. 즉, 돌봄에 대한 정부 지원은 지출이 아닌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다.’

이러한 플로로 교수의 설명에 크게 공감했다. 돌봄을 단순히 복지 측면으로 보지 말고, 돌봄경제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돌봄이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이번 컨퍼런스의 ‘설득’이 인상적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여성 노동력은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돌봄 부담 때문에 이들의 능력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여성의 생산 활동과 커리어 추구가 국가 경제에서 소득 발생 및 소비로 이어져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선순환을 이룬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돌봄 지원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다. 투자다.”

국내에서 돌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다.

“우리 센터는 갓 첫 발을 떴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돌봄경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와 국회 등 정책 입안자들이 앞으로 돌봄경제의 시각에서 돌봄 정책을 연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우리 센터는 앞으로 구체적인 연구와 현장 활동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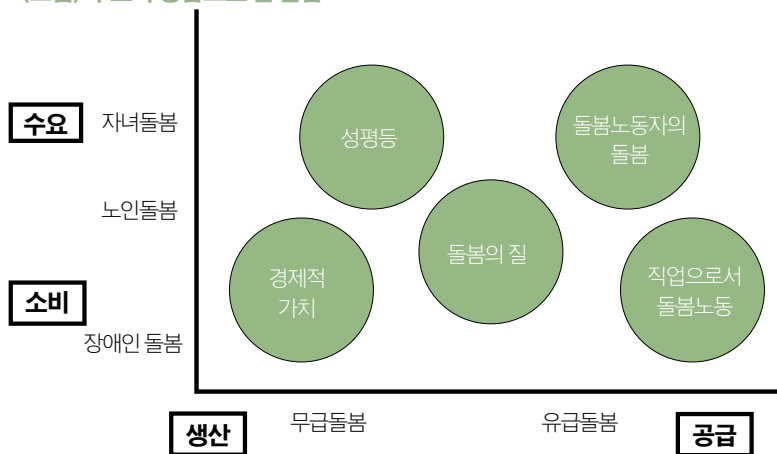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향후 어떤 연구 주제를 고려하고 있나.

“경제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이다. 돌봄의 수요는 자녀 돌봄,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등으로 나눌 수 있다(그림 참조). 그리고 돌봄의 공급은 크게 무급돌봄과 유급돌봄으로 나뉜다. 이 두 축 위에서 돌봄이 얼마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계산해봐야 한다. 또 직업으로서의 돌봄노동을 설계해볼 수 있다. 돌봄의 양 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한 주제이고, 왜 남성은 돌봄노동에서 열외인지 젠더 평등 관점에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돌봄노동자에 대한 돌봄 및 그 가족에 대한 돌봄 역시 간과해선 안 될 주제다. 돌봄을 복지 관점으로만 다루면 고려할 영역이 적다. 하지만 돌봄경제 시각에서 바라보면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깊게 생각해봐야 하는 여러 주제가 드러난다. 앞으로 우리 센터가 해야 할 연구가 무궁무진하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인상적이었던 점 중 하나는 돌봄 현장 활동가들이 다수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토론 패널로도 나섰고, 영상으로도 현장의 현실과 고민을 전해줬다.

“돌봄이 중요하다면서도, 코로나 이전에는 돌봄은 당연히 누군가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치부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돌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필수 조건임을 뼈 아프게 깨달았다. 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 대상 데이케어센터와 요양원 등 돌봄 현장에 종사하는 분들은 제대로 된 인식과 처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 사태로 노동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 돌봄노동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컨퍼런스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드러내며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싶었다. 개인적으로는 영케어러(Young Carer), 즉 돌봄노동을 담당하는 청년들의 현실을 드러낸 것도 주요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간 우리 사회는 청년 돌봄노동자에 대해 거의 무지했다. 장애가 있거나 노쇠한 부모를 돌보느라 공부와 취업 등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그림> 수요와 공급으로 본 돌봄



돌봄 이주노동자, 영케어러 등 연구 주제에 집중할 것

한국의 코로나 방역이 '위드 코로나', 즉 일상 회복 단계로 접어들었다.

“팬데믹 초기 코로나 방역으로 돌봄 위기가 발생했다. 그 누구도 방역과 돌봄을 연결해 생각하지 않았고,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보육시설과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이 정상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것이다. 여전히 돌봄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방역에만 집중해도 우리 경제와 사회가 생산적으로 돌아갈 것이라 여긴다면 오산일 것이다.”

이번 컨퍼런스로 3년에 걸친 ‘돌봄노동과 경제’ 프로젝트가 일단락됐다. 향후 CTMS가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를 소개한다면.

“우리 센터의 이름이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다. 앞으로 고령화 이슈가 더욱 심화되면서 노인돌봄 수요가 크게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내국인이 노인돌봄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다. 앞으로 한국 사회는 돌봄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국제이주는 저출산 고령화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인구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따라서 우리 센터는 한국의 인구구조 변동과 국제이주라는 큰 시각에서 이주 돌봄노동자에 대한 연구와 정책 제언에 집중하고자 한다.

또한 ‘누가 돌봄을 제공하느냐’와 관련해 보면, 비단 여성만 돌봄노동을 담당하는 건 아니다. 남성도 있고 청년도 있다. 이들의 현실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여성에 편중된 돌봄 부담을 해소해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도 우리 센터의 주요 미션이다.”



은기수 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장·국제대학원 교수

지속가능한 돌봄사회 구축을 위해 정부, 기업 등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우선 ‘지속가능성’이란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인구구조 변동 측면에서 한국 사회는 지속가능한가’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현재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고민하면서 국제이주를 해결책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미래 한국의 인구 규모가 대폭 줄고,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등의 논의는 무성하는데, 국제이주를 통한 새로운 해결책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지속가능하려면 ‘한국인으로만 구성된 한국 사회’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국제이주를 포함해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와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아동돌봄뿐만 아니라 노인돌봄이 더 큰 문제가 된다.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결정된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관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기업의 역할과 관련해 포스코 사례를 들고 싶다. 포스코는 기업도 하나의 시민이라는 ‘기업시민’ 개념에 입각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업이 이윤만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고, 사회의 시민 일원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서로 협력할 때 지속가능한 한국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구성원들

이번 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는 많은 이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우리 센터는 불과 몇 명의 스태프가 운영하고 있다. 연구와 활동이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다.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서로 신뢰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여기까지 왔다. 풀타임으로 근무하며 센터 중심을 맡고 있는 문현아, 전지원 책임연구원과 이주현 프로그램 매니저, 강은혜 연구원, 강민석 연구원 등에게 항상 고맙다. 정식 스태프나 마찬가지로 열심히 활동해주는 조교 학생들이 없었다면 분명 그만큼 성과를 낼 수 없었을 것이다. 플로로 교수와 엘리자베스 킹 부르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토 팽 토론토대 교수, 카비타 람다스 전 OSF 디렉터, 마리나 두라노 전 OSF 여성인권 프로그램 오피서 등 우리 센터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해외의 파트너들, 또 많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준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한국을 대표하는 연구교육기관인 서울대에서 CTMS는 매우 드문 연구기관이다. 서울대 내 연구소는 대부분 학문적 연구를 중점에 둔다. 반면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속한 우리 센터는 연구 외에도 현장 활동, 정부와 현장의 중개, 정부와 국회 등에 대한 정책적 제언 등을 다각도로 실천하는 새로운 개념의 연구센터다. 이러한 통섭적, 확장적 연구소가 제대로 정립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서울대 및 국제대학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길 바란다. 또 정부와 국회는 시민사회와의 접촉점을 넓히는 매개체로, 기업은 파트너로 우리 센터를 생각해주길 바란다. 중립적 입장에서 시민사회 활동을 후원하고, 또 시민사회와 정부, 기업 등 다양한 사회주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

